

전통문화·체험행사 활용 세대간 소통 강화해야



〈12〉광주향교의 사업방향과 광주공원

600여년 역사 자랑...유교문화 계승 지역 대표 교육기관
제향·문화센터·예절지킴이 기능에 매년 전통혼례 행사도
광주공원 연계 체험활동 사업 통해 열린 공간 변화 모색을

600여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향교는 한국 유교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광주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이다.

조선 태조가 왕이 되던 해, 각 도의 안찰사들에게 교육을 개혁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이를 계기로 각 고을에는 백성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육기관인 향교가 세워졌다.

광주향교는 1398년(태조 7년) 서석산(현재 무등산) 서쪽 장원봉 아래 세워졌다가 호환(虎患)으로 성의 동문 안으로 옮겨지어졌다. 하지만, 이곳 또한 지대가 낮고 수해가 자주 일어난다는 이유로 1488년(성종 19년) 현감 권수평에 의해 구동 일대 광주공원 내 현재의 자리로 옮겨져 신축됐다.

공원 일대의 광주향교는 호남지역 의병본부인 의병청이 임시 설치된 곳이기도 하며, 기우만 의병부대의 집결지로서 한말 최대 의병 항쟁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이처럼 광주향교는 광주공원과 더불어 광주·호남 의병 역사의 자취를 고스란히 담은 대표적인 역사교육현장이다.

조선초기 향교는 지방문화의 중심지로서 백성의 교육과 향악(지방의 자치악)을 통해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목적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백성교육을 위한 교육보다는 과거시험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자리 잡고, 이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향교에서 공부하는 이들이 급격히 줄었다. 점차 교육기능을 상실한 향교는 지역사회 내에서 제사, 지방 문화센터로서 활용되며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1985년에는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광주시 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됐고, 현재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으로 발돋움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광주향교는 시민들의 유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의 기능을 비롯해 선현에 제사를 드리는 제향의 기능, 지역사회에 공자의 도를 알려 교화시키는 지방 문화센터의 기능, 예절 지킴이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이나 현대인들에게 전문문화를 계승하는 공간으로 여전히 각광받고 있다. 유교의 현대적인 해석을 통한 인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문 강좌와 서예교실, 유교대학과 더불어 방학 중 충효교실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예절과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활동도 전개한다.

매년 음력 8월27일 공자 탄신일에는 모든 유림 및 시민들이 작헌례를 행한다. 행사 후에는 효행자·선행자 표창과 더불어 기로연 및 기념행사도 이뤄진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인 전통혼례 행사 또한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예식 일제를 학교에서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진밀감을 쌓을 수 있고 혼례를 찾아온 이들 에게도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광주향교는 매년 1만8천여명여가 다나들 만큼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이며 이곳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들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광주공원과 향교를 담당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돼 있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설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자연 등 향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체험 기회 또한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광주향교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현대인들에게 ‘온고지신’의 정신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이다. 내년 중으로는 문화재



60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향교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전통을 상징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사진은 광주 남구 광주향교 전경.

활용사업으로 광주공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향교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중채 광주향교 전교는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곳인 광주향교를 현대적 감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가겠다”며 “보다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모든 세대에게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광주문화관광해설사 줄세우기 나서나

소수 해설사 '서명받기' 입방아... 위탁사업자 선정 앞두고 적절성 논란

과도한 근무수칙으로 논란이 제기됐던 광주문
화관광해설사(본부 7월9일자 5면) 내부에서 ‘해설
사의 위상을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몇몇 해설사
들이 서명 발기에 나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를 두고 해설사 내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에 ‘줄 세우기’가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다음달 초에 있을 2021년 해설사 운영 민간 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앞두고 있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광주문화관광해설사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는 제목의 해설사 다짐을 담은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현재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명서에는 ‘최근 한두 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개인 의견을 전체 의견처럼 왜곡된 정보를 외부에 알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권위가 실추됐다’는 내용을 첫 문구에 담았다.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해설사간 갈등 유발시키는 행동 지양,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검증된 해설사 활동 보장 등 내용을 세세하게 작성했다.

그러나 서명을 받고 다니는 1-2명의 해설사에 대한 배경과 서명서의 진정성 문제가 내부 단톡방에서 도마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문화관광해설사 A 씨는 “지난번 근무수칙이 개선된 이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해설사외 임원과 협의하지 않고 1-2명의 회원들이 서명을 받고 다나미형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를 옹호하고 나서는 등 편 가르기를 조장했다”며 “위탁업체는 누가 맡든 잘만 해주면 되는데 해설사 문제를 몇몇 해설사들이 위탁업체의 줄세우기 식으로 서명을 받고 나서는 마치 못해 사인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업체와 재능기부나 다른없는 해설사는 갑을관계가 돼버린 느낌”이라며 “해설사 문제는 내부 회설사회 임원회의를 거쳐 거론되던데 이들 방식이 잘못됐고, 서명을 본인들과 친한 해설사들만 받고 다니거나 심지어 그만둔 사람까지 등원, 대리 나온까지 종용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었다며 해설사와 임원진에 의견을 제시한 후 해설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1-2명이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있었다"며 "좋은 일로 잘해보자고 시작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받고 있어 찍는 자와 피하는 자가 발생해 불편할 수 있다"고 털어놴다.

또 다른 해설사 C씨는 “해당 서명은 연말에 위탁업제 선정에 현재의 위탁운영업체가 불이익을 받지않거나 오히려 재선정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논쟁거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광주문화관
광해설사를 보도한 모 언론사의 사설에 대해 오
히려 해설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강한 볼멘소
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해설사 D씨는 “국정감사에서는 해설사 위탁업체의 문제를 지적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위탁업체 대표가 고소고발한 것을 지적한 게 핵심”이라며 “문화관광해설사 역할은 지역의 문화관광을 제대로 알리고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에 우선하는 게 능가부 형식의 자유직업이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스토리를 발굴하고 항상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규직보다도 과도한 규정을 만들어 해설사들간의 분란 조장하고 출세우리가 팩트인데 이를 잘못 해석해 오히려 해설사의 기강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서명운동을 했던 해설사 E씨는 “국감장에서 나온 내용으로 시정이나 시장이 해설사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것 같아서 우리들의 자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상제 만담용으로 시작했다”며 “부정적 인식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했을 뿐 위탁업계를 위해 한 것이라서 몇몇 해설사가 새발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씨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65명의 해설사 중 몇 명의 서명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서명받기에 나섰던 해설사 F씨는 “해설사 모두 잘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했고, 나중에 임원진이 나서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독단적으로 나서느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사람이 직접 구석구석
안마해주는 느낌이에요**

—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력으로 탄생한 3D 마사지 기법 —
골든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 | 박인비

Park Inbee

**마사지 전문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져요**

— 프로 마사지사들의 따뜻한 체온을 담아낸 기술 온열 마사지 —
2019 US 여자오픈 우승 | 이정은

Lee Jeong-eun

**세계 정상급 프로들은
파나소닉 리얼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EW

REAL PRO

EP-MAK1

**무릎 뒤쪽 근육까지
섬세하게 풀어주네요**

— 무릎 뒤 힙프 부위를 꼭 눌러 지압해주는 포인트를 예약 —
2018 LPGA 메이저클래식 우승 | 유소연

Yoo So-yeon

EP-MAK1-E (메이지)

EP-MAK1-K (블랙)

EP-MAK1-C (아이보리)

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선진안마기술집약체

2018 GOOD DESIGN AWARD WINNER 최고 디자인 수상	2018 RED DOT AWARD WINNER 최고 디자인 수상	2018 IF PRODUCT DESIGN AWARD WINNER 최고 디자인 수상	2018 KOREA CONSUMER AWARD WINNER 최고 소비자 만족 수상	2018 KOREA CONSUMER AWARD WINNER 최고 소비자 만족 수상	2018 KOREA CONSUMER AWARD WINNER 최고 소비자 만족 수상	2018 KOREA CONSUMER AWARD WINNER 최고 소비자 만족 수상	2018 KOREA CONSUMER AWARD WINNER 최고 소비자 만족 수상

격이 다른 기술력으로 당신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 드립니다. **Healthcare Leading Company**

파나소닉이 탄생시킨 최고의 프리미엄, 안마의자

터치패널 컨트롤러

뛰어난 가독성과 직관적인 터치 조작으로 원하는 마사지 부위를 섬세하고 편리하게

3D 독립구동 모터

3개의 고성능 브러시리스모터로 마사지 전문가의 섬세한 손놀림을 구현하는 기술

온열 마사지

마사지 전문가의 기술에 인간의 체온까지 고스란히 담아낸 파나소닉만의 독보적 기술

파나소닉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